

# 여러분의 미래는 밝다

전 중 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코로나 대유행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470만 명을 넘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갇힌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을 호소한다. 자영업자들은 참다못해 폐업을 선언한다. 네 학기 째 학생이 사라진 캠퍼스는 스산하고 적막하다. 이 미증유의 감염병은 세상을 나락에 빠뜨렸는가?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지금 다시 계몽(Enlightenment Now)』을 쓴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를 포함한 몇몇 학자들은 뜻밖의 소식을 전한다. 코로나는 끔찍하지만, 곧 사라질 것이다. 전염병은 태초 아래 인류가 줄곧 맞닥뜨린 문제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성과 과학, 그리고 전 지구적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전염병을 잘 다스리고 있다. 코로나 발발 이전에 세계는 모두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진보는 다시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는 눈부시게 밝다.

이쯤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듯하다. “저기요. 교수님. 어차피 우리가 낸 등록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나올 테니 팔자 편한 소리 만 들어놓으시는데요. 대학교 들어와서 과동기들조차 못 만나 본 참담한 심정을 알기나 해요?” 백 퍼센트 이해한다. 조금만 진정하고, 이러한 날 선 반응에 숨겨진 믿음에 주목하자. 바로 우리에겐 활기차고 건강한 삶이 기본으로 주어지며, 질병은 귀찮은 예외일 뿐이라는 믿음 말이다. 인류 진화의 거의 모든 시기에서, 이 믿음을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언제나 질병이 기본이었다. 건강이야말로 드물게 얻는 축복이었다.

수십만 년 전 수렵-채집 생활을 했던 현생 인류의 조상들은 20세에서 30세 정도의 기대수명을 지녔다. 놀랍게도, 1900년에도 전 세계 기대 수명은 고작 31세에 불과했다. 이토록 높은 사망률을 오랫동안 유지한 주요 원인은 주기적으로 인류를 덮친 전염병이었다. 6세기 동로마제국을 휩쓴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전중환 교수는 “오늘날 인류는 이성과 과학, 그리고 지구적 협력으로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

(사진=픽사베이)

“

코로나는  
곧 사라지고  
진보는  
계속될 것이다.

”

3천만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14세기에 유행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쓰러뜨렸다. 흑사병이 엄습하면 도시 전체가 한 사람도 없이 텅 비게 되는 일도 흔했다. 시신은 수레에 던져 배에 싣고 바다로 가 불태웠다. 상황이 심각하면 시체는 거리에 방치되었고 개들이 뜯어먹었다. 살아남은 이들에겐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잘 막아 내게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정교한 방어 체계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장착시켰다. 수많은 세포와 신체조직들로 이루어진 면역계가 그 대표 선수다. 쥐, 구더기, 콧물, 고름, 배설물 등 병원체를 옮기는 대상을 메스껍게 여겨 멀찌이 거리를 두게 해주는 혐오감정도 있다.

인류의 오래된 방어 체계는 근대에 들어서 이성과 과학에서 유래한 지원군을 든든하게 얻게 되었다. 세균이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이론이 확립되고, 백신과 항생제가 발명되고, 공공 하수도가 건설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됐다. 이런 보건 혁명은 전염병을 몰아내는데 기여했다. 호랑이에 물려가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조선 시대에는 가장

무서운 재난으로 통했던 마마, 곧 천연두는 제녀의 종두법으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많은 아이를 육중한 철제 인공호흡장치 안에 집어넣었던 소아마비도 백신 덕에 거의 자취를 감췄다.

20세기에 이루어진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는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1950년에 전 세계 아동 5명 중 한 명은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 지금은 어떨까? 아동 50명 중의 한 명이 사망하고 있다. 기대수명도 많이 늘어나서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에 전 세계 기대수명은 평균 72.6세에 이르렀다. 참고로 1836년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는 감염된 종기 예비를 항생제가 없어서 59세로 생을 마감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다. 백신을 만드는데 최소 5년, 대개 10~20년이 걸리지만, 코로나 백신은 단 1년 만에 개발을 마치고 대량 생산되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과 재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류는 이성과 과학, 그리고 지구적 협력을 통해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데이터는

“코로나가 제2의 흑사병”이라는 한탄이 지극히 과장되었음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작년 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220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로 희생되리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미국인 천명당 6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1900년 미국에서 전염병으로 실제 사망한 사람들은 천명당 8명이었다. 1900년은 어느 해와 다름없는 평범한 해였지만 말이다.

필자는 지금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옛날 사람들을 떠올리며 위안으로 삼자고 정신승리를 시전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대중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성과 과학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한, 사회의 진보는 언제나 가능했고 실제로 사회는 꾸준히 나아졌음을 역사는 알려준다. 음울한 숙명론에 빠지지 말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사실에 주목하라.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기성세대와 달리, 선진국에서 태어난 여러분에게 펼쳐질 미래는 눈부시게 밝다.

※ 대학주보 온라인판에 필자가 명시한 참고문헌 목록이 있습니다.